

전남 치매유병률 전국 최고인데 치료·요양 담당인력은 최하위권

65세 이상 10명 중 1.1명이 환자...2.3명은 위험군 광주 진료비용 서울의 2.5배로 전국 두번째로 높아 안정적인 인력 수급·진료비용 절감 대책 마련해야



전남지역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치매 치료·요양인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의 연간 치매환자 진료비용이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진료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연말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추정자는 광주 1만5683만명, 전남 4만2986명으로 조사됐다.

경기가 12만83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2457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치매역학조사를 기반으로 집계된 치매유병률은 전남과 충남이 각각 11.0%로 가장 높았고, 경북 10.7%, 충북·세종 각각 10.

6%, 광주 9.3%, 대구 9.1%, 서울 8.8%, 부산 8.7%, 울산 8.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1명은 치매환자이고, 10명 중 2.3명은 치매가 진행될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의 65세 이상 치매인구는 4만2000여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 수준이었지만, 전체 노인 중 치매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치매유병률과 치매 바로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환자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전남은 타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실제 전남은 치매환자 1000명당 치료·요양인력수가 392.1명으로, 세종(364.7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특히 전남(4만2986명)의 치료·요양인력수는 치매환자수가 비슷한 부산(4만4691명·1000명당 484.9명)과 비교하면 치매환자 1000명당 92.8명이나 적었다.

반면 광주의 치매요양인력은 환자 1000명당 775.2명으로, 전국에서 대전(828.2명)에 이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치매진료비용이 593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648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같은 광주의 치매진료비용은 서울(219만원)보다도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연간 치매진료비용은 1인당 340만원으로, 전남(396만원)도 전국 평균보다 56만원이나 많았다.

고선주 전남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은 "전남지역의 치매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의료진들이 시골 근무를 기피하는 탓에 요양인력 대부분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과 무기직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요양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하며, 치매 진료(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아파트에 캠핑 트레일러 주차 금지한 자체규약 정당”

법원 “통행·피난·소방 방해”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를 세울 수 없다고 한 입주자 자치기구 규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식)는 23일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 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다”고 판결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2015년 7월부터 자체 동력장치가 없는 캠핑 트레일러를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세웠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4월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캠핑 트레일러와 산악자전거 등 레저용 차량을 주차장에 세울 수 없다고 관리 규약을 바꾸자 “트레일러는 길이 3.65m,

너비 1.78m, 높이 1.45m로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트레일러가 자가동력장치가 없어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에 세울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등록 차보다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트레일러와 같은 레저차가 주차공간을 장기간 점유한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헬멧 안 쓴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대여업체 책임 없다”

전동킥보드 대여자가 안전수칙을 고지 받고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다가 숨진 경우 대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규부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숨진 A씨 유족이 대여업체와 보험사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체와 보험사가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

혔다.

1심 재판부는 안전장비를 착용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대여업체와 보험사에 85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대여업체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A(당시 43세)씨는 2015년 8월 14일 전주시의 한 대여업체에서 아들과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

비로 숨지자 유족은 대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가 대여업체가 제공한 안전모를 자의로 착용하지 않은 점, 빌린 전동킥보드에 어떤 기계적 결함이 없는 점, 영업공간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고 운전에 능숙한 A씨가 평지에서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데도 넘어진 것은 지병이나 과속 등을 원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방통위, 5·18 왜곡 지만원 블로그 글 삭제

‘북한군 투입설’ 표현 부분 네이버 게시물 비공개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북한군 투입설’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표현한 지만원씨의 네이버 블로그 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씨의 블로그 글이 5·18을 왜곡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지난 6일 열린 제18차 통신심의소

위원회에서 위원 5명 중 4명이 해당 게시물 삭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게시물들은 지난 9일부터 비공개 조치됐다.

심의 대상이 된 글은 지씨가 지난해 4월 11일 올린 것으로, “5·18은 전라도 잡 것들과 북괴가 아합해 벌인 국가전복 반란 폭동이라 널리 널리 알릴 것이다”,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습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글이 5·18 피해자·유가족을 폭도로 비하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한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지씨의 블로그에는 이번 삭제건을 제외하고도 5월 관련 사실을 왜곡한 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3일 오전 담양군 담양읍 인근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정모(여·33)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전복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승용차 빗길 고속도로 전복사고 ‘아찔’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헌신 구조 ‘훈훈’

일가족 구출하고 사고 수습 구급차 이송하자 현장 떠나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됐으나 뒤따르던 운전자들의 헌신적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23일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담양군 담양읍 봉산면 광주~대구 고속도로 고서 분기점 인근 6.8km 지점(광주 방향)에서 정모(여·33)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씨의 차량이 전복됐다. 당시 차량에는 정씨와 함께 뒷자리 카시트에 어린 두 남매(5·4세)가 타고 있었다. 이들은 안전벨트를 한 채 빠져나오지 못해 2차 사고 위험에 처했다.

이 때 이를 본 임모(41)씨 등 뒤따르던

경찰과 함께 사고 수습을 돕던 이들 운전자는 구급차가 정씨와 아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하자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정씨와 자녀들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수습을 도운 임씨 등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해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웃 훔쳐 입고 매장 빠져나간 여성, 과거 사용한 신용카드로 탈피




○·아웃트 의류매장에서 셔츠와 청바지를 훔쳐 입고 나온 30대 여성이 과거에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때문에 경찰에 탈피.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백모(여·37)씨는 지난해 9월 오후 2시15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한 아웃렛 이모(여·37)씨의 의류매장에서 5만원 상당의 셔츠와 15만원 상당의 청바지를 탈

피실에서 입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왔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백씨는 탈의실에서 새옷으로 갈아 입고 자신의 웃을 소포백에 담은 수법으로 웃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매장 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백씨가 범행 3일 전 웃을 구매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조취를 통해 검거.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통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등)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호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드이상) 적합-(상가)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육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당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